<반짝반짝 한국어> 1 기억의 은행 '메모로'를 아십니까?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5 episode 1.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Stefano 입니다.

F: 안녕하세요. 진이입니다. 여러분, 그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다시 만나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Stefano 씨도 그 동안 잘 지냈죠?

M: 네. 그럼요. 진이 씨,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도 재미있게 해 봐요.

F: 네, 좋아요. 제가 없는 동안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요

M: 그래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거 같아요. 진이 씨, 감기는 걸리지 않았죠?

F: 네. 덕분에 건강해요. Stefano 씨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M: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하나요?

F: 이번 시즌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데요. 이번 시즌에는 한국어로 된 신문 기사나 칼럼을 소개하려고요. 신문 기사나 칼럼을 통해 한국어도 공부하고 같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번 시즌의 취지입니다.

M: 신문 기사 좋은데요. 그럼 이번 신문 기사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F: Stefano 씨, 혹시' 메모로'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어요?

M: '메모로'요? 메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메모지? 포스트잇? 뭐, 그런 건가요?

F: 비슷한 거 같기도 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생각을 세대 차이가 난다, 구식이다, 나와 맞지 않는다 등등 자신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M: 네,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소외시키고 어른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보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F: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 볼까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기사는 젊은이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메모로'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입니다.

M: 어, 혹시 '메모로'라는 말이 라틴어 아니에요? 어디선가 들어 본 거 같기는 한데요.

F: 아, 그래요? 그럼 기사를 한번 들어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M: 네, 좋아요.

F: 듣기 전에 제가 말하는 표현들을 집중해서 들어 보세요. '삶의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주다, 후손들은 시행착오를 덜다, 동영상이나 음성을 저장하다, 어른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다,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에도 도움이 되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N: 시대와 관계없이 경험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의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줬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기억 덕분에 후손들은 시행착오를 덜고 더 나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모아 전할 수 있다면...." 이를 담아내기 위해 탄생한 게 '기억의 은행'으로 불리는 '메모로'(Memoro)입니다. 이는 노인과 어르신들의 기억을 '사회 · 문화 유산'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운동으로 2007 년 8 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메모로가 세대간, 지역간, 국가간 갈등 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간 통합이나 소통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라틴어로 '기억하다', '이야기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는 메모로는 2007 년 당시 프란코 니콜라와 발렌티나 바이오 등 20, 30 대 4 명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출발점이 됐습니다.

메모로 활동은 간단합니다. 메모리 헌터인 젊은 세대가 60 세 이상의 어르신을 찾아 과거의 기억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5 분 정도의 분량으로 웹사이트(www.memoro.org)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캠코더, 카메라, 스마트폰 등 동영상이나 음성을 저장할 수 있는 기기만 있으면 누구든 메모리 헌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메모로는 2013 년 말 처음 선보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해외 사례를 살펴보던 중 이탈리아의 메모로 프로젝트에 주목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곧바로 일선 학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메모로 프로젝트를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일여고의 메모로 동영상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문 다큐'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베트남전에 위생병으로 참전한 한 학생 외할아버지의 기억을 5 분짜리 동영상 2 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생생한 전쟁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학생들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 세대 어른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문 다큐 동아리 지도교사는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보여 놀랐다"면서 "메모로 프로젝트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기억을 영상에 담는 것만이 아니라 반세기 이상 벌어져있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때요? 기사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나요? Stefano 씨, 어때요?

M: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프로젝트네요. 어른들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프로젝트, 멋있네요.

F: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기사를 부분 부분 들으면서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M: 네, 좋아요.

N: 시대와 관계없이 경험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의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줬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기억 덕분에 후손들은 시행착오를 덜고 더 나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모아 전할 수 있다면...." 이를 담아내기 위해 탄생한 게 '기억의 은행'으로 불리는 '메모로'(Memoro)입니다. 이는 노인과 어르신들의 기억을 '사회 · 문화 유산'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운동으로 2007 년 8 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메모로가 세대간, 지역간, 국가간 갈등 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간 통합이나 소통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라틴어로 '기억하다', '이야기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는 메모로는 2007 년 당시 프란코 니콜라와 발렌티나 바이오 등 20, 30 대 4 명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출발점이 됐습니다.

F: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들어 볼게요. Stefano 씨, 여기까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M: 메모로 프로젝트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네요. 역시 '메모로'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었네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왠지 뿌듯한데요. 여기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표현인가요?

F: 아까 듣기 전에 말한 표현 중에서 '자신의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다'와, '후손들은 시행착오를 덜다'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M: 'To leave one's wisdom to future generations', 'To reduce trial and error among future generations', 아,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험을 통해 후손들이 실수를 줄인다'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메모로 프로젝트의 목적에 잘 맞는 표현들이네요.

F: 그럼 기사를 계속 들어 볼까요?

M: 네, 좋아요.

N: 메모로 활동은 간단합니다. 메모리 헌터인 젊은 세대가 60 세 이상의 어르신을 찾아 과거의 기억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5 분 정도의 분량으로 웹사이트(www.memoro.org)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캠코더, 카메라, 스마트폰 등 동영상이나 음성을 저장할 수 있는 기기만 있으면 누구든 메모리 헌터가 될 수 있습니다.

F: Stefano 씨, 이번 부분은 좀 짧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M: 이번에는 메모로 프로젝트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F: 맞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M: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한 동영상이나 음성을 저장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To record video or audio clips'가 될 것 같은데요.

F: 네, 맞아요. 메모로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동영상이나 음성을 저장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M: 메모로 프로젝트에서는 하는 활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저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진이 씨가 저보다 윗사람이니까 진이 씨를 인터뷰해 볼까요?

F: 저 아직 젊거든요. 농담하지 말고 계속 들어 보기로 하죠.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을 다 들어 볼게요.

N: 한국에서 메모로는 2013 년 말 처음 선보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해외 사례를 살펴보던 중 이탈리아의 메모로 프로젝트에 주목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곧바로 일선 학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메모로 프로젝트를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일여고의 메모로 동영상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문 다큐'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베트남전에 위생병으로 참전한 한 학생 외할아버지의 기억을 5 분짜리 동영상 2 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생생한 전쟁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학생들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 세대 어른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문 다큐 동아리 지도교사는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보여 놀랐다"면서 "메모로 프로젝트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기억을 영상에 담는 것만이 아니라 반세기 이상 벌어져있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 여러분, 잘 들었죠?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죠?

M: 이 부분에서는 한국에서의 메모로 활동을 소개하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네요.

F: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른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다,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에도 도움이 되다'가 중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M. 'To share and understand elders' lives', 'To sever the link between generations'. 그렇겠네요. 메모로 프로젝트가 하는 일이 어른들의 경험을 후손에게 물려 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른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도 많은 곳에서 메모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네요. 몰랐어요.

F: 그렇죠?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M: 진이 씨,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기사를 소개해 줬네요. 저도 지금까지 저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어요.

F: 제가 Stefano 씨를 어른으로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웃음) 그럼 오늘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기사 내용은 메모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메모로'라는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며, 메모로 프로젝트에서 하는 주요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메모로 프로젝트가 언제 도입이 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즌 5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기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Stefano 씨,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

M: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시사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F: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기사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M: The piece of news from above is an adapted excerpt from the article 기억의 은행, '메모로'를 아십니까?, that appeared on Segye Ilbo on March the 20th 2015.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

© 2015 Gilddong KFL All right reserved.